

#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변신한 담배공장

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소재 옛 연초제 조장이 2년간의 재건축 과정을 거쳐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(이하 청주관)으로 지난 27일 개관했다.

청주관은 공사비 총 577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1만9,855㎡,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됐다. 청주관에는 수장공간(10개), 보존과학공간(15개), 기획전시실(1개), 교육공간(2개), 라키비움 및 관람객 편의시설 등을 갖췄다. 과천, 덕수궁, 서울에 이어 네 번째 국립현대미술관이다.

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로 기능하는 청주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4천점과 미술은행 소장품 1천100점 등 5천100여점(2020년 기준)을 소장할 계획이다. 우선 현대미술관 소장품 1천300여점과 미술은행 소장품 600점이 옮겨왔다. 이관된 일부 소장품은 '개방형 수장고'와 창문을 이용한 '보이는 수장고' 등을 통해 일반 관람이 가능하다.

청주관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그동안 출입제한 구역이었던 수장고와 보존과학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것이다. 국내 최초 수장형 미술관으로서 누구나 직접 들어가 볼 수 있는 개방 수장고, 시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는 보이는 수장고를 각각 운영하여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미적 체험을 제공한다.

전문가들의 공간인 보존처리실도 개방하여 '보이는 보존과학실'로 운영한다. 그동안 관람객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유



국립현대미술관 청주 개관  
OPENING CEREMONY OF CHEONGJU THE 4TH VENUE OF MMC



화 보존처리실, 유기·무기 분석실 등 보존전문 공간과 수복 과정을 공개하여 전문가들의 미술품 보존처리과정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.

국립현대미술관은 2012년 청주시와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하고 옛 연초제 조장을 미술관으로 재건축했다. 연초제 조장은 광복직후인 1946년 설립 이후 2004년 가동 중단되기까지 청주시민의 삶의 터전이자 지역경제를 견인했던 청주의 대표 산업시설이었다. 14년간 폐산업시설로 방치되었던 이곳은 약 2년간의 재건축과정을 거쳐 '국립현대미술관 청주'로 탈바꿈했다.

# 남북, 철도·도로 연결 착공식

남북이 지난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·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개최했다.

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날 착공사에서 "오늘 서울에서 개성으로 오는 철길이 활짝 열렸다. 70년 가까이 굳게 닫혀 있던 문을 열고, 우리는 또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딛었다."며 "남과 북을 이어준 동맥은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돼 우리의 경제지평을 대륙으로 넓혀줄 것"이라고 말했다.

한반도 철도 연결은 남북 경제협력 중 가장 상징적 사업으로 수백조 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26일 '경향신문'이 한국교통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이 연결되면 북한 관광객 증가 및 북한 광물자원 반입 등에 따라 향후 30년간 140조 원 넘는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.

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개성공단, 금강산관광, 철도 및 도로 연결, 지하자원 개발, 경수로 사업 등을 추진했을 경우 향후 30년간 남한이 169조4,000억 원의 경제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.

경의선이 경유하는 개성·평양·신의주·묘향산 등 주변 4개 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30년간 6,841만명으로 예상된다. 연평균 228만 명으로 평양 102



▲ 지난 26일 판문역에서 열린 '동·서해선 남북 철도,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'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(왼쪽부터),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 참석자들이 도로 표지판 제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

만 명, 묘향산 80만 명, 개성과 신의주 각각 23만 명 수준이다.

광물자원 수입대체 효과도 상당하다. 철강·아연·무연탄 등 남한에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광물자원을 북한에서 들여온다면 수입대체 효과만 61조 원으로, 물류비용 절감 효과까지 더하면 경제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.

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북한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. 도로·철도 등 인프라 개발과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을 위해서다.

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전략혁신기획단장은 "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남한이 '대륙의 심'에서 벗어날 수 있다."며 "경의선이 남한과 중국 동북 3성, 몽골, 러시아를 육상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등 남북경협이 진전되면 국내 산업의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의 기회가 될 것"이라고 말했다

34년을 오직 한 길

벨플라워/세리토스/다우니/플러튼/롱비치/놀릭

# 빅토리 바디샵

VICTORY BODY & SHOP

LIFETIME WARRANTY!

최대의 시설 / 만족한 서비스 / 저렴한 가격

- ✓ 보험 수리 전문 (일단, 전화 먼저 주세요!!)
- ✓ Lease Return
- ✓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
- ✓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
- ✓ Towing & Rent Car



(562)920-9745~6  
17441 Clark Ave. Bellflower, CA 90706  
Email: victoryautobody@gmail.com

